

한국과 일본 간 축구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

이종길¹, 이공주², 양재식^{3*}

¹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²충남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

³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Analysis of Emotions of Anti-Korea and Anti-Japan in International Soccer Games of Korea vs. Japan

Jong-Kil Lee¹, Kong-Joo Lee², Jae-Sik Yang^{3*}

¹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²Professor, Division of Radio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

³Researcher, Institute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 동아시아컵 축구대회를 중계하고 SNS 코멘트를 남길 수 있었던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5CH로부터 2,400개의 관련 코멘트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집된 코멘트에 대한 빈도 분석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대 일본전에서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경기 전·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대 한국전에서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경기 전·후 모두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둘째,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일본을 상대할 때,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욱 강했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상대할 때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욱 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는 반일·반한 감정의 유형과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기존의 반일·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들이 고찰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분석했다는 데 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축구 경기, 반일, 반한, 집합감정, SNS, 코멘트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cer games of Korea vs. Japan and emotions of anti-Japan and anti-Korea, empirically. For that, this study selected 2,400 comments from Naver and 5CH where people could write their SNS comments on EAFF E-1 football championship 2017. The study results got by frequency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as follows. First, Korean showed amity with own team and hostility to the opponents, and stronger hostility toward Japan. Japanese showed hostility to own team, and it was especially strong when vs. Korea. Second, Korean showed stronger hostility toward Japan than others. Japanese showed stronger hostility to own team when vs Korea. From those results, this study could conclude that soccer games of Korea vs. Japan could be a field to express those emotions rather than effect on the emotions of anti-Korea and anti-Japan. By the empirical method of this study on the emotions of anti-Japan and anti-Korea unlike advance studies, this could receive favorable evaluation.

Key Words : Soccer game, Anti-Korea, Anti-Japan, Group emotion, SNS, Com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3926821)

*Corresponding Author : Jae-Sik Yang(4774495@hanmail.net)

Received January 4, 2019

Revised February 7,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스포츠는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건, 간접적으로 관람하던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감정적 자극을 얻고 스포츠를 통해 이를 표출함으로써 스포츠에 빠져든다. 이는 스포츠가 인간의 원초적인 흥분과 폭력적 본성을 드러내고 격렬한 모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합법적 감정 표출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1,2].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 공격성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1]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스포츠 현장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며 열광한다. 나아가, 스포츠를 매개로 격렬한 감정과 공격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은 바로 스포츠 국가대항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3].

스포츠 국가대항전은 자국과 타국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 사람의 관념 속에서 자국과 타국의 경계가 스포츠의 경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선명해지고 이는 자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상기시키며 민족주의를 강화한다[3].

즉, 스포츠 국가대항전을 통해 개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함[4]으로써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보다 강렬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민족주의 때문에 스포츠 국가대항전은 여타 스포츠 경기에 비하여 보다 강렬하고 공격적인 집단 감정을 생산한다[5].

스포츠 국가대항전을 통해 민족주의적 집단 감정이 보다 강렬하게 표현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국가대항전이다[6]. 양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민족주의가 스포츠 국가대항전을 통해 집단 감정의 형태로 보다 강렬하게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5,6].

반일 감정으로 표현되는 한국인의 대 일본전에 대한 공격적인 집단 감정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연원에 근거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표현으로 설명된다[5,7].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더해 해방 이후의 미흡한 사과와 보상 및 우경화 현상 등에 대한 반감으로 생성된 민족주의적 감정이라는 것이다[8].

이 반일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 한국인은 일본과의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겨야 하고 민족적 우월감까지 확인해야 하는 공격적인 집단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9,10]. 그리고 이러한 저항민족주의에 기초한 반일 감정은 ‘한국인의 스포츠 감정에 내재된 민족주의와 세계화

성향의 연구[5]에서도 그 실체가 검증된 바 있다.

반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일본인의 대 한국전에 대한 강렬한 공격적 감정은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의 일본의 불안감, 우경화 현상과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한 반항 등의 관점에서 설명된다[11]. 이러한 반한 감정의 생성과 전개는 대체로 극우보수주의 세력에 의해 견인되는 것으로 한류 등에 의한 문화적 호감을 상쇄한다[12].

따라서 한국의 반일 감정이 일본의 침략에 연원을 둔 역사적 결과물인데 반해 일본의 반한 감정은 한국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격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스포츠에서의 승리를 토대로 보다 나은 일본인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3,13] 자기합리화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항전이라는 스포츠 현상과 그에 따른 반일·반한이라는 공격적인 집단 감정이라는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감정으로서의 반일·반한 감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에 나타난 사례의 고찰[14], 반일 및 반한 감정의 생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및 실증 분석[15,16], 스포츠 현장에서의 반일·반한 감정 고찰[3]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스포츠 경기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Boehm이 제시한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는 마치 애국주의와 같은 것으로, 개별 민족 그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민족 구성원의 전반적 태도이다[17].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항전을 바라보는 각 국민의 모습은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로 투영되는데 이 경우의 민족주의는 역사적 혹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감정이 모아지는, 마치 종교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 감정은 전체적 성격보다는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만 매우 강한 귀속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한다[17,18]. 그리고 이러한 특정 내용에 대한 정보의 전달자로 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이다.

몇몇 학자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족주의 감정의 주요 매개이자 연원으로 미디어를 주목한다[3]. 미디어의 전달 역할을 통해 민족주의적 감정이 생산·재생산되고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공유된다는 관점이다.

반면 다른 학자들의 경우는 미디어를 통해 민족주의적 감정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그 미디어의 내용을 받아

들이는 주체가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의 합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13]. 미디어가 스포츠 상황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이것이 이를 수용하는 대중의 관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민족주의적 감정의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자의 입장을 통틀어 살펴 볼 때, 스포츠 현장에서 대중들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생산하게 되는 계기는 미디어의 상황 전달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이에 의해 생성되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형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의 매개적 역할과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집단적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털미디어로 대변되는 국내의 다음, 네이버, 일본의 5CH(구 2CH, 2017년 10월 명칭 변경) 등은 스포츠 현장의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익명성을 지닌 상호작용이라는 SNS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19,20]으로써 집단 감정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및 5CH 등의 포털 미디어의 스포츠 국가대항전과 포털미디어에서 제공되는 SNS를 통해 표현되고 공유되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반일 및 반한 감정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 간 축구 경기에서의 반일, 반한 감정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첫째,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에 나타나는 집단 감정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에 나타나는 집단 감정의 강도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한·일 간의 축구 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 동아시아컵 축구 대회(정식 명칭 : EAFF E-1 Football Championship 2017)를 집단 감정의 수집 대상 스포츠 경기로 선정하였다. 이 대회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의 4개국이 참가하여 남녀 각각 리그전을 치렀다. 따라서 이 대회를 집단 감정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에 대한 집단 감정 뿐 아니라, 양국의 대 중국, 대 북한 전을

통하여 각기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21].

한국과 일본의 경기 및 그 외 2개국과의 경기에 대한 집단 감정을 수집하기 위하여 각 경기를 중계하였고 해당 경기에 대한 실시간 응원 코멘트가 기록되어있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5CH를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SNS 매체로 선정하였다[22].

이후 네이버 실시간 응원 코멘트 창(응원 한마디)에 기록된 한국의 대 일본전, 대 중국전, 대 북한전의 남녀 각 세 경기에 대한 한국 축구 팬들의 실시간 코멘트를 반일 감정 등의 집단 감정 수집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전체 경기에 대한 5CH의 경기 중계 스투드에 남겨진 실시간 코멘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 상의 코멘트들은 그 자체로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집단 감정 표현의 결과물[19]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경기와 코멘트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ive games and comments

Team		The opponent	Game result	Number of comments
S.Korea	Male	Japan	win (4:1)	20,025
		China	draw (2:2)	10,390
		N.Korea	win (1:0)	7,346
	Female	Japan	lose (2:3)	1,422
		China	lose (1:3)	1,407
		N.Korea	lose (0:1)	1,750
Japan	Male	S.Korea	lose (1:4)	4,123
		China	win (2:1)	1,088
		N.Korea	win (1:0)	3,602
	Female	S.Korea	win (3:2)	2,697
		China	win (1:0)	1,002
		N.Korea	lose (2:0)	1,002

* S.Korea = South Korea / N.Korea = North Korea

2.2 자료 수집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로부터 반일·반한의 감정을 내포한 SNS 상의 코멘트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네이버와 5CH의 코멘트들을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수집하였다.

Python을 활용하여 수집된 전체 코멘트 중, 한국의 대 일본전, 대 중국전, 대 북한전 남녀 각 세 경기의 시작 시간 기준 100개, 종료 시각 기준 100개 씩, 각 경기 별 총 200개, 전체 여섯 경기 총 1,200개의 코멘트를 한국인의 감정 표현 텍스트로서 선별하였다. 선별 과정에서 연구진 회의를 거쳐 경기와 전혀 관계없는 코멘트들은 제외

하였다. 일본인의 감정 표현 텍스트 역시 5CH의 실시간 코멘트로부터 동일한 조건의 코멘트 총 1,200개를 선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일 총합 2,400개의 코멘트를 축구 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자료 처리

Python을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 된 코멘트들로부터 선별된 총 2,400개의 최종 분석 대상 코멘트는 언어학, 사회학, 심리학 전문가 각 1인과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감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감정의 유형별 강도를 점수화하여 부여하였다. 감정의 유형 구분과 강도에 대한 점수 부여는 신문기사의 논조를 통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분석한 이유타 유기가 제시한 ①자국 선수·팀에 대한 평가, ②상대국 선수·팀에 대한 평가, ③응원에 대한 기술, ④표현방법의 특성 등을 준거[23]로 하였다.

우선, 각 코멘트의 감정은 표현된 내용에 따라 자국에 대한 우호적·적대적 감정,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적대적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코멘트에는 네 가지 감정 유형별로 기술 및 표현방법의 특성에 따라 단순 현상 기술의 경우 1점, 약한 호불호의 표시 2점, 보통 감정 표현 3점, 강한 감정 표현 4점, 극찬 혹은 비하 등의 과격한 감정 표현 5점의 강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감정의 유형 구분과 강도의 점수 부여 예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tandard of measuring for emotions on comments

Strength point	Type of emotion			
	Own team		The opponent	
	Amity	Hostility	Amity	Hostility
1	Just description			
2	Weak emotional expression			
3	Middle emotional expression			
4	Strong emotional expression			
5	Derision or rave			
* Examples				
Comments	Own team		The opponent	
	Amity	Hostility	Amity	Hostility
S.Korea 4231, Japan 523 formation	1	1	1	1
Jang is a bad player	1	2	1	1
Korea must win!!! Crush Japan!!!	3	1	1	5
Jap* can prepare nicely like those facilities	1	1	3	2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감정의 유형별 점수가 부여된 각 코멘트는 해당 경기별 집단 감정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반일·반한 감정의 강도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 이외의 경기와 평균비교(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축구 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경기별 집단 감정 유형 및 특성

한국의 경기별 집단 감정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한국 남자대표팀의 대 일본전 집단 감정에서 주로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은 경기 전·후의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타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었다. 단순 경기 관련 내용 기술 등 감정이 측정되지 않는 코멘트의 강도 점수가 1로 주어진 점을 감안하여 2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팀과의 경기 후 상대에 대한 극도의 비난 등을 의미하는 5점에 해당하는 적대적 감정이 6회에서 15회로, 강한 감정 표현인 4점에 해당하는 적대적 감정이 2회에서 7회로, 3점에 해당하는 적대적 감정이 7회에서 11회로 증가하는 등, 대체로 적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상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확연하게 강해지는 경우는 [5]의 연구에서 상대가 일본인 경기에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현상이다. 특히 해당 코멘트들이 일본에 대한 강한 멸시의 표현이 주를 이루는 점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승패에 관계없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 중국전의 주목할 만한 감정 표현은 자국 팀에 대한 경기 후의 적대적 감정이었다. 경기 전에 비해 5점의 매우 강한 적대적 감정이 8회, 4점의 강한 적대적 감정이 28회, 3점의 보통 수준의 적대적 감정이 23회, 2점의 약한 적대적 감정이 13회 증가한 현상은 상대적 약체인 중국과의 무승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해당 코멘트들이 선수 및 감독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는 점, 해당 시기가 축구 팬들에 의해 대표팀 감독의 교체가 거론되던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스포츠 이슈와 관련 여론이 집

Table 3. Characteristics of group emotion for games - S. Korea

S.Korea - Male		own team				the opponent			
game	point	amity		hostility		amity		hostility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Japan win (4:1)	1	47	50	70	88	97	99	80	52
	2	6	16	20	11	2	1	5	15
	3	27	28	7	1	1	/	7	11
	4	16	6	3	/	/	/	2	7
	5	4	/	/	/	/	/	6	15
China draw (2:2)	1	60	97	79	7	92	99	78	88
	2	8	2	9	22	4	1	9	1
	3	22	1	8	31	3	/	/	6
	4	10	/	3	31	1	/	5	4
	5	/	/	1	9	/	/	8	1
N.Korea win (1:0)	1	66	86	62	41	95	92	86	83
	2	8	7	26	27	3	6	8	7
	3	18	3	8	14	2	2	1	4
	4	7	4	3	17	/	/	4	4
	5	1	/	1	1	/	/	1	2
Sum of eac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Korea - Female		own team				the opponent			
game	point	amity		hostility		amity		hostility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Japan lose (2:3)	1	34	66	83	48	92	91	65	82
	2	11	9	10	20	3	3	12	10
	3	26	18	3	21	5	6	5	2
	4	24	6	1	9	/	/	10	1
	5	5	1	3	2	/	/	8	5
China lose (1:3)	1	50	85	73	32	91	99	75	99
	2	12	10	15	36	4	/	6	1
	3	26	5	11	22	4	/	6	/
	4	12	/	1	8	1	1	4	/
	5	/	/	/	2	/	/	9	/
N.Korea lose (0:1)	1	50	77	87	45	88	88	79	91
	2	14	14	8	8	4	6	6	1
	3	24	7	3	24	6	4	5	3
	4	10	2	2	17	2	2	9	3
	5	2	/	/	6	/	/	1	2
Sum of eac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 감정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남자대표팀의 대 북한전에서는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경기 후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적대적 감정이 증가하였다. 이 역시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증가한 경우로서, 역대 전적에서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경기 내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여자대표팀의 경우 대 일본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유형은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경기 후 적대적 감정으로 강하게 변화한 부분이다. 3점의 우호적 감정 표현이 경기 전에는 26회, 경기 후에는 18회

로 감소했으며, 3점의 적대적 감정은 3회에서 21회로 증가하였다. 4점의 우호적 감정 역시 24회에서 6회로 감소하였고, 적대적 감정은 1회에서 9회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에 대한 집단 감정은 경기 전, 후 모두 적대적 감정이 주를 이루었다.

대 중국전에서의 주목할 만한 집단 감정은 경기 후에 나타난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다.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경기 전의 집단 감정은 경기 후, 3점의 적대적 감정이 11회, 4점이 7회, 5점이 2회 증가하여 나타났다. 반면 중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경기 전에 비해 경기 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큰 점수 차로 패배한 이후, 집단 감정의 유형이 자국에 대한 비난으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자대표팀의 북한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전의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경기 후 적대적 감정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주목할 만 하였다. 이 역시, 다른 경기와 마찬가지로 승패가 집단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한국인들은 대체로 경기 전에는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집단 감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자국 팀에 대한 우호의 감정과 적대의 감정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국에 대한 집단 감정은 경기 전에 특히 적대적 감정이 강하였으며, 경기 후에는 상대국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우호적 감정에 비하면 비교적 강한 적대적 감정이 관찰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대 일본전의 경우, 경기의 승패와 관계 없이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일본의 경기별 집단 감정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일본 남자대표팀의 대 한국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경기 전·후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대 중국전과 대 북한전에 비교해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해당 코멘트에서 나타나듯이 경기의 승패에 따른 실망감과 비난의 표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반한 감정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기합리화[3,11,13]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 한국전에서의 강한 자기 팀에 대한 적대감은 반일 감정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group emotion for games - Japan

Japan - Male		own team				the opponent			
game	point	amity		hostility		amity		hostility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S.Korea lose (1:4)	1	94	93	25	19	77	87	92	95
	2	2	6	38	42	14	10	7	4
	3	3	1	21	19	6	1		
	4	1		10	15	3	2	1	1
	5			6	5				
China win (2:1)	1	84	84	45	35	87	95	69	82
	2	12	12	40	38	11	3	13	12
	3	4	4	10	18	2	2	12	4
	4			5	9			4	2
	5							2	
N.Korea win (1:0)	1	68	72	44	32	93	88	93	96
	2	23	16	38	42	5	9	5	2
	3	8	10	15	22	2	3	2	1
	4	1	2	3	4				1
	5								
Sum of eac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Japan - Female		own team				the opponent			
game	point	amity		hostility		amity		hostility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S.Korea win (3:2)	1	77	71	50	45	98	96	77	88
	2	13	18	37	39	2	4	17	4
	3	10	7	10	16			5	7
	4		4	3				1	1
	5								
China win (1:0)	1	70	88	37	18	97	93	92	83
	2	24	10	42	37	2	2	8	7
	3	6	2	18	38	1	5	5	8
	4			3	5				2
	5				2				
N.Korea lose (0:2)	1	90	94	34	64	82	92	97	97
	2	6	6	43	28	14	7	1	1
	3	4		18	7	4	1		
	4			5	1				2
	5								2
Sum of eac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 중국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경기 전·후 모두 상대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적대적 감정을 표현한 코멘트들은 경기 전의 경우, 중국의 경기력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고 경기 후의 경우 중국의 거친 플레이를 비난하는 표현이 많았다.

이러한 코멘트의 특성과 역대 전적에서 중국이 상대적 열세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 팀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적대감은 국제관계에서 적대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에 기반을 둔[12,24] 집단 감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남자대표팀의 대 북한전에서는 상대 팀에 대한 집단 감정보다는 자국 팀에 대한 감정이 주를 이루는 대

체로 기본적인 형태의 일본인의 집단 감정 유형이 나타났다.

일본 여자대표팀의 경우는 남자대표팀에 비하여 대체로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주를 이루는 형태의 집단 감정이 주로 나타났다.

일본 여자대표팀의 집단 감정 유형에서 다소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은 대 북한전에서 0:2로 유일하게 패한 후,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던 상대에 대한 적대적 집단 감정이 그마저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자 대표팀이 대 한국전에서 패배했을 때와 유사한 현상이나,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코멘트들이 자국 팀의 실력이 북한 여자대표팀에 비해 상대적 열세임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점을 볼 때, 객관적 실력 차에 대한 순응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축구 경기에 다른 일본인의 집단감정의 유형은 주로 자국에 대한 비평을 토대로 한 적대적 감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에 대하여서는 패배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아 우월성에 기반을 둔 반한 감정의 형태가 표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반일·반한 감정의 강도 및 특성

2017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한국의 상대 국가에 따른 집단감정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한국 남자대표팀의 경우, 일본과의 경기 전 자국에 대한 우호적 집단 감정(2.24)이 대 중국(1.82)과 대 북한(1.6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5$)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후의 경우에는 자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일본의 경우 1.90으로 대 중국(1.04), 대 북한(1.25)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으며,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 또한 대 일본(2.18)의 경우가 대 북한(1.35), 대 중국(1.2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5$)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여자대표팀의 경우는 경기 전,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대 일본(2.55)의 경우가 대 중국(2.00), 대 북한(2.00) 보다 유의하게($p < .05$)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 후에는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대 일본(1.67)의 경우가 대 북한(1.34), 대 중국(1.20)에 비해 유의하게($p < .05$)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국에 대한

Table 5. Comparison of group emotion - S. Korea

S.Korea - Male pre-game			M	SD	F	p	post-hoc
own team	amity	Japan	2.24	1.304	6.160	.002	a > b, c
		China	1.82	1.095			
		N.Korea	1.69	1.061			
	hostility	Japan	1.43	.756	1.152	.317	
		China	1.38	.838			
		N.Korea	1.55	.845			
the opponent	amity	Japan	1.04	.243	1.573	.209	
		China	1.13	.485			
		N.Korea	1.07	.326			
	hostility	Japan	1.49	1.115	2.211	.111	
		China	1.56	1.234			
		N.Korea	1.26	.760			
S.Korea - Male post-game			M	SD	F	p	post-hoc
own team	amity	Japan	1.90	1.010	38.375	.000	a > b, c
		China	1.04	.243			
		N.Korea	1.25	.702			
	hostility	Japan	1.13	.367	114.432	.000	c > b > a
		China	3.13	1.079			
		N.Korea	2.10	1.150			
the opponent	amity	Japan	1.01	.100	5.353	.005	c > a, b
		China	1.01	.100			
		N.Korea	1.10	.362			
	hostility	Japan	2.18	1.500	19.856	.000	a > b, c
		China	1.29	.832			
		N.Korea	1.35	.892			
S.Korea - Female pre-game			M	SD	F	p	post-hoc
own team	amity	Japan	2.55	1.313	7.018	.001	a > b, c
		China	2.00	1.119			
		N.Korea	2.00	1.155			
	hostility	Japan	1.31	.837	1.918	.149	
		China	1.40	.725			
		N.Korea	1.20	.586			
the opponent	amity	Japan	1.13	.464	.743	.476	
		China	1.15	.520			
		N.Korea	1.22	.645			
	hostility	Japan	1.84	1.346	2.276	.105	
		China	1.66	1.297			
		N.Korea	1.47	1.010			
S.Korea - Female post-game			M	SD	F	p	post-hoc
own team	amity	Japan	1.67	1.035	9.579	.000	a > b, c
		China	1.20	.512			
		N.Korea	1.34	.699			
	hostility	Japan	1.97	1.114	2.119	.122	
		China	2.12	1.018			
		N.Korea	2.31	1.354			
the opponent	amity	Japan	1.15	.500	3.255	.040	c > b
		China	1.03	.300			
		N.Korea	1.20	.603			
	hostility	Japan	1.37	.971	6.148	.002	a > b
		China	1.01	.100			
		N.Korea	1.24	.818			

a=Japan, b=China, c=N.Korea / N=100 / p< .05

우호적 감정은 대 북한(1.20)의 경우가 대 중국(1.03)보다 유의하게($p < .05$)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대 일본(1.37)의 경우가 대 중국(1.01)에 비해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국 팀에 대한 경기 전의 우호적 감정과 경기 후의 상대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상대국은 일본이었다. 따라서 앞선 집단 감정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축구 경기에 따른 한국인의 스포츠 집단감정에서는 반일 감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0%를 넘는다는 동아시아연구원의 발표[25]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남자대표팀의 대 중국전 무승부의 경우, 코멘트에서의 적대적 경향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승리를 거둔 대 일본전의 적대적 감정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그리고 여자대표팀이 일본, 중국과 북한 모두에 패배했음에도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확연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축구 경기별 상대국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적 집단 감정은 경기의 승패보다는 상대국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상대 국가에 따른 집단감정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일본 남자대표팀의 경기 전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승리를 거둔 대 북한전(1.42)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적대적 감정은 패배한 한국과의 경기(2.34)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p < .05$).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집단 감정은 한국과의 경기(1.35)가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으며, 적대적 감정은 중국과의 경기(1.57)에서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다($p < .05$).

경기 후의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대 북한전(1.42)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적대적 감정은 대 한국전(2.45)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상대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적대적 감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 중국전(1.26)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일본 여자대표팀의 경기 전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집단 감정은 대 중국전(1.36)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적대적 감정은 대 북한전(1.94)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p < .05$).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대 북한전(1.22)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대적 감정은 대 한국전(1.30)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Table 6. Comparison of group emotion - Japan

Japan - Male pre-game			M	SD	F	ρ	post-h oc
own team	amity	S.Korea	1.11	.469	8.197	.000	c > a, b
		China	1.20	.492			
		N.Korea	1.42	.684			
	hostility	S.Korea	2.34	1.139	12.679	.000	a > b, c
		China	1.75	.833			
		N.Korea	1.77	.815			
the opponent	amity	S.Korea	1.35	.730	6.738	.001	a > b, c
		China	1.15	.411			
		N.Korea	1.09	.351			
	hostility	S.Korea	1.10	.389	18.063	.000	b > a, c
		China	1.57	.987			
		N.Korea	1.09	.351			
Japan - Male post-game			M	SD	F	ρ	post-h oc
own team	amity	S.Korea	1.08	.307	9.843	.000	c > a, b
		China	1.20	.492			
		N.Korea	1.42	.755			
	hostility	S.Korea	2.45	1.114	7.299	.001	a > b, c
		China	2.01	.948			
		N.Korea	1.98	.841			
the opponent	amity	S.Korea	1.18	.539	1.655	.193	/
		China	1.07	.326			
		N.Korea	1.15	.435			
	hostility	S.Korea	1.07	.355	5.394	.005	b > a, c
		China	1.26	.630			
		N.Korea	1.07	.383			
Japan - Female pre-game			M	SD	F	ρ	post-h oc
own team	amity	S.Korea	1.33	.652	4.350	.014	b > c
		China	1.36	.595			
		N.Korea	1.14	.450			
	hostility	S.Korea	1.66	.781	3.195	.042	c > a
		China	1.87	.812			
		N.Korea	1.94	.851			
the opponent	amity	S.Korea	1.02	.141	10.933	.000	c > a, b
		China	1.04	.243			
		N.Korea	1.22	.504			
	hostility	S.Korea	1.30	.611	7.984	.000	a > b, c
		China	1.08	.273			
		N.Korea	1.07	.432			
Japan - Female post-game			M	SD	F	ρ	post-h oc
own team	amity	S.Korea	1.44	.795	14.136	.000	a > b, c
		China	1.14	.403			
		N.Korea	1.06	.239			
	hostility	S.Korea	1.71	.729	36.580	.000	b > a, c
		China	2.36	.905			
		N.Korea	1.45	.672			
the opponent	amity	S.Korea	1.04	.197	1.402	.248	/
		China	1.12	.456			
		N.Korea	1.09	.321			
	hostility	S.Korea	1.21	.608	2.564	.079	/
		China	1.29	.701			
		N.Korea	1.09	.570			

a=S.Korea, b=China, c=N.Korea / N=100 / $p < .05$

경기 후에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대 한국전 (1.44)에서 가장 강했으며, 적대적 감정은 대 중국전(2.36)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경기 후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체로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이 모두 높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대체로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자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남자 대표팀의 대 한국전(패, 경기 전 2.34, 경기 후 2.45), 대 중국전(승, 경기 후 2.01), 여자대표팀의 대 중국전(승, 경기 후 2.36)등이 2.0을 초과하는 높은 강도를 보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직접적 표출보다는 자국팀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의 감정이 많이 나타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승패보다는 경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우월한 일본인의 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본의 경우는 상대국에 대해 보다 강한 경쟁의식이 존재할 경우, 자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식에 기초한 자국 팀에 대한 적대감은 일본 남자대표팀의 대 한국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 경기만이 2.0이 넘는 강도의 적대감을 보이는 경기 중 유일한 패배였다. 특히, 일본인의 54%가 한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그 중, 73.4%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비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 점[25]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반한 감정은 본 연구를 통해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동아시아컵 축구 대회 중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실시간 코멘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첫째,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에 나타나는 집단 감정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한국과 일본의 반일 감정과 반한 감정의 강도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와 반일·반한 감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5CH에 개설된 실시간 응원 코멘트 창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간 남녀대표

팀경기 및 양국의 대 중국전, 대 북한전 경기에 달린 코멘트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ython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수집된 전체 코멘트 중, 각 경기의 시작전과 종료 후를 기준으로 각 100개씩 200개의 코멘트를 총 12경기에서 2,400개를 선별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당 코멘트의 감정 유형을 자국 팀과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비교(ANOVA)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에 따른 집단 감정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기 전에는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주로 보였으며, 경기 후에는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자국 팀에 대한 우호의 감정과 적대의 감정이 달라졌다. 상대국에 대한 집단감정은 경기 전 대체로 강한 적대적 감정이 표현되었으며, 경기 후에는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적대적 감정이 다소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단, 일본에 대해서는 경기 내용 등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한 적대적 감정이 관찰되었다.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집단 감정보다는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경기 전·후 모두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상대의 경기 태도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다소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자국 팀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적대적 감정이 표현되었다.

둘째, 축구 경기를 통한 한국과 일본의 반일·반한 감정의 강도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상대국가가 일본일 경우 자국 팀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다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타 국가와 일본과의 차이는 승패 등의 경기 내용 및 결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자국 팀에 대한 적대감이 대체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승리를 거둔 경우에도 자국 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경쟁의식에 따른 우월감의 증명이 집단 감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였다. 특히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자국 팀에 대한 매우 강한 적대감을 보여,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에 있어서 그 내용과 결과는 반일·반한의 감정의 발생 유형과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양국 간의 축구 경기는 오히려 양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생성된 반일·반한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또한 축구 경기를 통해 표출되는 반일·반한 감정은 다른 국가와의 경기와 비교할 때 오히려 뚜렷하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각 감정의 대상과 형태가 명확하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일본의 경우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표출한다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반일 감정이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근원[10]에서 출발하며, 반한 감정은 한국의 비판으로 인한 우월감의 손상[11]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간 한국과 일본 간의 반일·반한 감정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대체로 질적 연구방법과 고찰을 통해 추상적으로 언급되던 방법론상의 아쉬움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반일·반한 감정의 존재가 실증적으로 비교·분석 되었고, 특히 양국 간의 축구 경기를 중심으로 언급되던 반일·반한 감정의 양태를 다른 국가와의 경기와 비교분석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와 감정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의 연구들에서는 더 많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를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제언한다.

REFERENCES

- [1] E. Cashmore & J. Y. Jeong. (2010). *Making sense of sports*. Paju : Hanul.
- [2]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A Time-Series Analysis for Emotional Dynamics of Sport Issue and Group Emotion : Focusing on Korean Swimming Player Tae-Hwan Par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93-400.
- [3] H. S. Oh. (2015). National Discourse Formed on Soccer Broadcasting of Japan.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105, 45-58.

- [4] B. C. Kim & S. Y. Kwon. (2007). Sporting Nationalism Reconsidered: Globalization, Sport, and Corporate Nationalism.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8(1), 75-85.
- [5]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Tendency in Sport Emotion of Korean : Focusing on 2016 Brazil Olympic Gam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41-349.
- [6] J. H. Lee & W. Y. Ha. (2016). Korea and Japan Annual Football Matches under the President Park's Period. *Korean Journal of History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Dance*, 21(1), 41-61.
- [7] S. K. Kwon. (2006). *Globalization and Korean nationalism: focus on nationalism's development with roll of governance*.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 [8] J. H. Park. (2014). Analysis on Japanese culture acceptance and anti-Japan sentiment after the 2000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7(2), 258-287.
- [9] J. S. Kim & I. H. Kim.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dia's Frame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cused on '2015Premier12'.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31(1), 25-41.
- [10] Y. T. Choi. (2010). Media Exposure on WBC, Perception of the Japanese National Team, and Purchas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4), 293-333.
- [11] G. J. Jo. (2016). Anti-Korean sentiment as an echo of anti-Japanese sentiment.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9(1), 250-281.
- [12] J. B. Kim. (2015). A Proposal for the Crossing-Border of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 Researching of Hybrid Culture Governance System in the North-East Asi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2(2), 159-186.
- [13] S. J. Park. (2017). *A Study on the Anti-Korea Sentiment in Japan : Mainly in the Four Major Japanese Newspapers*.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 [14] M. S. Song. (2016). Korea-Japan net nationalism site and the Anti-Korean sentiment, anti-Japanese consciousnes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10, 127-148.
- [15] J. H. Choi, H. W. Jeong & H. J. Jung. (2014). An Empirical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Japan's Military Threat, Economic Cooperation and Identity.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9(1), 41-76.
- [16] R. G. Hwang. (2014). A Study on Anti-Korean Wave Phenomenon and Solution Plan in Japan and China. *The Journal of Hallyu Business*, 1(1), 211-233.
- [17] M. H. Boehm. (1933). *Nationalism: Theoretical Aspects.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IX*. Amsterdam: Elsevier.
- [18] J. S. Kim & K. M. Lee. (2013). The Out-Pouring Way of Emotion in Korean Sport Fiel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6(4), 79-94.
- [19] S. M. Hong. (2013). *Social network*. Seoul : Power Book.
- [20] J. M. Ahn.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Portal Journalism: Breaking News, Interaction, and Relative News with reference to Naver News and Yahoo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1), 187-218.
- [21] E. Y. Kim & E. J. Ko. (2018). Monitoring Mood Trends of Twitter Users using Multi-modal Analysis method of Texts and Imag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419-431.
- [22] B. H. Shin & H. K. Jeon. (2017). Extracting Method of User's Interests by Using SNS Follower's Relationship and Sequential Pattern Evaluation Indices for Keywor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71-75.
- [23] Yuki. Iwata. (1998). *A Study of Sports Nationalism : Focused on Korean and Japanese Newspap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4] S. H. Oh. (2017). Japan'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China in an Age of China - Japan Rivalry.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60(2), 184-221.
- [25] M. N. Kim. (2014). *Korea-Japan Mutual Recognition Survey*. KookminIlbo(Onlin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33163&code=13110000&cp=nv>

이 중 길(Lee, Jong Kil)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와 사회문제

• E-Mail : jklee@cnu.ac.kr

이 공 주(Lee, Kong Joo)

[정회원]



- 1994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석사)
- 1998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박사)
- 2005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 정보검색, 정보추출
- E-Mail : kjoolee@cnu.ac.kr

양 재 식(Yang, Jae Sik)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이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전통무예 전승·보급
- E-Mail : 4774495@hanmail.net